

“난항 거듭한 끝에 노사 양 당사자 합의”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최종합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본청 8층 회의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단(임금)교섭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과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 및 교섭위원을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해왔으며,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2017년 대비 2.6% 인상하고, 그 외 직종의 기본급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한다. △근속수당은 1년 근속 시 월 32,500원, 이후 1년마다 32,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한은 최대 20년으로 하며 월 65만원을 지급하며 1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기상여금은 연 90만원으로 하되 적용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며 연 9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은 현행 수준에 따른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는 시도교육청별 현행을 유지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이다.

김승환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



전북교육청이 29일 본청 8층 회의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단(임금)교섭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회장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성장한다고 믿는다”며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

과 교육공공체, 국민들이 보고 있다. 서로를 돌보며 같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미래교육 위한 교실평가 혁신 방안 모색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책 포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형운)는 2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최명희홀)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실평가 혁신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며, 향후 전면도입이 예고된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성취평가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 과정 중심평가, 교사별 평가 등의 교실평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

사 및 교육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교실평가 혁신의 이론과 실천을 공유하고 토의했다. 정책 포럼 1부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미래교육은 교수·학습의 개선과 연계한 교실평가 및, 준거참조평가, 과정중심 평가, 수행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을 위한 교실평가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김현호(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한 교실평가의 기본 원리를 개관하고, 학생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 단위학교, 개별교사 등 평가 주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 포럼 2부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실평가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중등 교사들과 학생들이 교실평가를 개선 사례 중심으로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중등 교사들은(남원 용성중 박선진, 회현중 전주은, 남원서진여고 이현주,

신흥고 최재훈) 학생, 학부모의 평가 인식 제고와 일상화된 단위학교의 수업공개 협의회와 평가 연구회 등을 통한 교사들의 협업에 주목했다.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은(덕일중 유정민, 양현고 임찬주) 모둠원 간 협력과 수행평가 실시 시기의 집중,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정책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실행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교실평가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군특성화고 병역·취업·대학 진학 동시 해결

진안공고, 국방부와 협약 체결

진안공업고등학교(교장 권태순)가 29일 국방부(장관 김중호)와 학·군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진안공고는 지난 7월 국방부 군(軍) 특성화고에 선정돼 2019년부터 전문 기술부사관 양성 교육에 돌입하며, 이번 협약식으로 진안공고를 비롯한 8개 군특성화고가 참여한다.

군특성화고는 고교 3학년 과정에서 군의 첨단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과 동시에 입영해 전문병 21개월, 전문사관 15개월 총 3년을 복무하게 된다. 이후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우수기업·공기업에 취업하거나 전문기술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제도다.

이들은 3년간의 의무복무 기간동안 학비를 지원받으며 e-MU(e-Military

University)과정을 통해 전문사관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e-MU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산·학·군 협력 기술 인력 육성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군 복무 동안 온라인 수업과 방학 중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원격 강의로 전문사관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학과다. 대학에 진학해 학사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어 교과과정에서 병역 문제와 취업, 대학진학까지 확실한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진안공고 권태순 교장은 “국방부 군 특성화고교에 선정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확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꿈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현장실습 지원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

전주대 LINC+사업단이 주최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주관한 2018 현장실습 지원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식이

지난 28일 지역혁신관 105호 호텔식 음로 실습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현장실습 지원 우수기관 인증제는 현장실습 지원 우수기관을 파악하고 우수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양질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습득, 공유해 현장실습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실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2017년 및 2018년 다수의 현장실습생이 참가하고 평가 평점이 높은 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검토해 최종 9개 기관(관광/서비스 분야 7개 기관, 금융업 분야 1개 기관, 공공서비스 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날 참석한 우수기관 중 JW Marriott Dongtaerum Square 정희진 인사이사는 “실습에 참여한 전주대 학생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직접 대학에 방문하니 더 좋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전주대와 활발한 현장실습 교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이 중요시되는 만큼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해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심영국 센터장은 “현장실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지원 우수기관 인증제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우수 실습기관, 양질의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8월 1일 시행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 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간 유예됐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중앙대, 서울과기대 등 일부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앞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의 수를 줄이거나 졸업학점 축소, 강사 해고 등을 검토 중이며, 한양대처럼 이미 해고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예된 법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일이 내년 8월 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내년도 강사법 안착을 위해 총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했다. 내달 3일까지 기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의 표결이 남아있다.

/뉴시스



국제한식조리학교의 '마스터클래스'

‘한식 꿈나무들 모두 모여라’

국제한식조리학교, 강사 초청 마스터클래스 호응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마스터클래스’라는 이색적인 공개 강좌가 있다. 국내외 유명 셰프, 요리연구가, 교수 및 CEO를 초청해 각 분야의 성공 노하우와 외식산업계의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국제한식 조리학교의 학생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오픈되는 특별 강좌다.

올해는 발우공양 김유신 부장, 사운즈한남 박민혁 총괄셰프, 이연순 식품명인, 이종임 요리 연구가(현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 윤숙자 전 한식재단 이사장(현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현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 등이 강단에 서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29일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한식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주요 골자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와 양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기관은 ▲국제한식조리학교 졸업생들의 미국 취·창업 진출

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미국 현지 레스토랑에 조리인력 파견 ▲메뉴 개발 및 레시피 제공 ▲전문가 그룹의 건설성 지원과 맞춤형 식자재 및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상공회의소 정창식 회장은 “지금 미주 한인 레스토랑 협회에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한식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외식 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한식조리학교 교과과정에 적용하여 배출된 인재를 통해 미국의 한식 레스토랑 인력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이번 11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정규과정 및 단과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www.cchikchef.com) 및 상담전화(063-230-166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